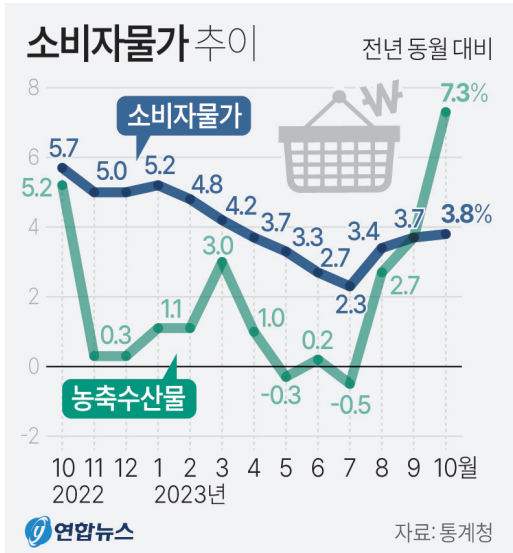


광주 물가 7개월만에 4% 올라...농산물 13.5% '깡충'

호남통계청 10월 물가 동향



불안한 국제 정세·글로벌 유가 변동성 확대...전남 3.8% 올라 채소류 2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석유류 전년비 1.3% 하락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 8월부터 오름세를 이어오다 7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전남은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글로벌 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잇따른 불안정한 농산물값이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광주 113.62(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4% 올랐다. 전남은 114.11로 전년 같은 달 보다 3.8% 상승했다.

광주는 올 3월 4.7%의 상승률을 기록한 뒤 4월부터 3%대로 내려앉아 올 7월 2.2%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찾았지만 이후 8월(3.5%)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이달 7개월 만에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남은 지난 7월 1%대(1.6%) 상승률을 보였지만 8월 3.0%, 9월 3.6%로 오르더니 이달 3.8%를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였다. 특히 농축수산물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을 기준으로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7.3% 올라 전월(3.7%)보다 상승 폭이 컸다. 채소류(5.3%)를 비롯한 농산물이 13.5% 뛰면서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상 농산물을 수확하는 가을에는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화된다. 그러나 올해는 이상저온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으면서 수확량이 줄어 가격 안정화가 더딘 모습이다.

농산물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61%포인트였다.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를 0.61%포인트가량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2.1% 올랐다.

지난해 9월(12.8%)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

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신선과실지수는 26.2% 뛰어 2011년 1월(31.9%) 이후 12년 9개월 만에 가장 오름폭이 컸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6%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2% 올랐다.

주요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6% 상승했다.

석유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3% 하락했다. 다만 전년동월비 하락 폭이 7월 -25.9%, 8월 -11.0%, 9월 -4.9% 등으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물가상승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동 전쟁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석유류 가격은 전월과 비교하면 1.4% 올랐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지난해 10월 요금 인상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은 둔화됐으나 농산물 상승률이 증가했다"며 "석유류 하락 폭도 축소되면서 상승률이 전월 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11월 물가) 국제유가나 환율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

주요 품목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3년 10월 기준(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사과	72.4
생강	65.4
복숭아	47.0
상추	40.7
파	24.6
토마토	22.8
택시로	20.0
쌀	19.1
아이스크림	15.2
우유	14.3
전기료	14.0
닭고기	13.2
피자	12.3
시내버스	11.3
구내식당	6.1



연남뉴스 자료: 통계청

기아-협력사, 부품 신소재 공동 개발 성공

'인쇄회로기판' 보호코팅제 국내의 특허 3건 취득...공급망 개선

기아가 협력사와 함께 세계 최초 기술을 적용한 차량 부품 신소재 공동 개발에 성공했다.

기아는 2일 법무화학, 에스앤에스와 함께 세계 최초로 변성 에폭시계 소재를 적용한 '인쇄회로기판(PCB) 보호코팅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 특허 2건과 해외 특허 1건을 취득, 부품 핵심소재의 공급망 개선을 달성하게 됐다.

기아는 최근 자동차의 전자장비 부품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PCB의 수요에 대응하고, 공급 및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PCB는 전자장비 구성요소를 지지하고 이를 연결함으로써 전기 신호를 흐르게 하는 부품이다. PCB 보호 코팅제는 전기전자부품 및 인쇄회로기판을 보호하는 절연 코팅제로 온도, 부식, 충격 및 진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자동차의 전자 제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부품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으나, 글로벌 무역보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소재공급망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게 기아 측은 설명했다.

이에 기아는 완성차 기업과 부품 협력사 간 상생을 위한 협업을 통해 부품 내재화를 통한 공급망 안

정화를 달성,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변성 에폭시계 신소재는 기존 소재에 비해 부품 원가를 32.4% 절감할 수 있다. 또 소재가 상온에서 경화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기존보다 생산성이 2배 정도 증가했다. 설비 투자에서도 라인별로 최대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어 부품협력사의 신규공정 설비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성과에 대해 "상생을 통해 세계 최초의 소재 개발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모빌리티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역상생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지역 중소기업계와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이 지역제품 구매비를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혁신도시 공공기관-중기제품 우선구매 논의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지역상생협의체 회의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2일 나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10개 공공기관과 지역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지역상생협의체의 실무담당자들과 지역 중소기업 간 소통을 통해 지역제품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임경준 광주전남 회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한전과 한전 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인터

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등 10개 기관 소속 상생협력 및 구매계약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제품 우선구매 관련 실무상 어려움과 해결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각 기관의 총 구매금액 대비 낮은 수준의 지역제품 구매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상호협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경준 회장은 "원자재가격 폭등과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힘든 시기로, 소득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역제품 판로확대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올 김장 비용 작년보다 낮게 농식품부, 할인·공급 확대 등

정부가 올해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김중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년 11월 김장비용은 평균 22만3000원 정도 됐으나 올해는 각종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를 통해 최소한 작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농협 출하 계약 물량으로 배추 2000t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다음 달 700t을 추가로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순부터 내달 초까지 김장 성수기에 배추 공급이 부족하면 12월 출하 물량의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조기 출하 업체에 운송비, 도매시장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 견고추와 대파 물량도 시장에 공급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김장 채소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견고추와 대파의 지난달 소비자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0.9%, 27.4% 올랐고 이달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정책관은 대파에 대해서는 "현재 주로 강원에서 출하되고 있는데 작황은 좀 나쁜 상황이고, 12월부터 전남에서 출하되는데 그 지역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만 (대파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고, 이로 인해 국내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건조·살균 강화...삼성전자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모델이 건조와 살균 기능을 강화해 2일 출시한 '비스포크(BE-SPOKE) 식기세척기 카운터탑'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해 시공에 대한 부담 없이 간편하게 설치·이동이 편리한 이번 제품은 '열풍건조' 기능을 더하고 '젓병살균'·'행균 추가' 등을 강화해 위생적인 식기 관리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43.12(+41.56)
↑ 코스닥	772.84(+33.61)
↓ 금리(국고채 3년)	3.979(-0.092)
↓ 환율(USD)	1342.90(-14.40)

청년창업사관학교, 호남권역 동문포럼 개최

졸업기업 간 네트워킹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등 모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일 호남권역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기업 네트워킹 행사 '동문포럼 CONNECT DAY'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포럼 CONNECT DAY 행사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거쳐 간 동문기업 간의 경험 및 애로사항 공유, 협업방안 모색 등 졸업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소재 창업사관학교 입교 및 동문기업 약 120여명이 참석

했다. 졸업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토크콘서트, 졸업기업과 입교 기업간 오픈 멘토링 및 자율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타지역의 창업기업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본부장은 "호남권역 및 제주지역 사관학교 동문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동문기업 선구매들이 정보공유 및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